

'바른정당 통합론' 드라이브 가는 安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당 자체 여론조사를 계기로 촉발된 바른정당과 통합론 불씨 살리기에 연일 주력하고 있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 통합론에 대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의 회동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실제 안 대표는 유 의원 측에 여러 채널로 회동을 타진 중이다.

안 대표는 아울러 바른정당과 통합론에 대해 "잘 되면 새로운 정치 실험이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합·연대로 거리를 뒀던 안 대표가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바른정당 통합론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안 대표는 지난 15일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같이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취지로 통합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에선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바른정당 통합의 사전 정치작업으로 여겨지는 시도당·지역위원장 일괄사퇴안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모양새다. 사공정규 시도당위원장협의회 회장(대구시당위원장)은 이와관련 "진행

과정상 문제는 덮어두고 오직 당을 위한 중정과 선의만 보기로 했다"며 시도당위원장 일괄사퇴 의결서를 안 대표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보유한 15개 시도당 중 사고당 지역인 세종·경북을 제외하면 12개 시도당이 사퇴를 당 대표에게 위임해야 하지만 정호준 서울시장 위원장과 배준현 부산시당위원장, 강학도 경남도당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사퇴를 거부했다.

정 위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차라리 처음부터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방향성을 두고 절차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결론 제2차당, 자강을 위해 (일괄사퇴를 추진)하는 것처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거짓말을 안 했다면, 그리고 절차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하며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현재의 일괄사퇴안 추진) 민주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진영 최고위원도 "정당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선 우리 국민의당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런데 (일괄사퇴) 당사자들의 대대적 토론 한 번 없이 개별적 설득, 그리고 개별적 회유를 통해 이를 추진하

안철수 "필요하면 직접 만나야"...劉회동 시사 "공론화는 국감 이후"...공식적으로 여유 두기 당내엔 여전히 반대 목소리...일괄사퇴안도

는 건 정공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아울러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에 대해서도 '방향에 대해선 저도 동의한다'면서 "바른정당이 우리 당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직후 최고위에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고했다는 기사를 봤다. 그런데 정작 제안한 우리 당에선 그런 공식적인 논의가 없이 제안이 바른정당에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실을 바늘 하러에 매어 쓸 수는 없다"며 "공적인 체계를 통한 논의, 이것이 정당 민주화의 기본임을 우리가 잊어서 안 되겠다"고 일갈했다.

박지원 전 대표 등 일부 호남 중진들도 공공연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안 대표와의 사실상 통합 협상 파트너인 유승민 의원을 전 세누리당 원내대표로 지명하며 "왜 갑자기 국민의당을 넘보실까"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전 대표는 21일에도 페이스북에 "통합해도 바른정당에서 10명도 안 올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아울러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가 이명박 정권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바른정당과 통합시 '적폐청산 반대 세력'으로 몰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뉴시스의 통화에서 "지척하면 우리가 적폐청산에 반대 목소리를 내게 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통합론을 두고 온갖 설왕설래도 오가는 상황이

다. 한 언론은 유 의원 측이 통합의 전제로 박 전 대표 출당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박 전 대표는 이에 "사실이 아닐지 모르지만 사실이라면 주제넘은 망언"이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그는 또 "유 의원은 이로써 합당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안 대표가 슬기롭게 대처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제가 안 대표에게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박 전 대표의 출당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안 대표 측 관계자도 "(박 전 대표 출당설은)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가 한 번도 나온 적 없다"며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이다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일축했다.

안 대표는 당내 반발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자 공식적으로 통합 논의 시기에 여유를 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하는 건 국감이 끝나고 나서"라고 했다. 그러나 일단 바른정당과 통합은 물론 정책연대, 선거연대 등 다양한 옵션이 놓여 있는 만큼 안 대표와 유 의원의 만남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실제 유 의원과 직접 어떤 생각인지 대화도 안 해보지 않았나"라고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 측은 유 의원과 합당을 포함해 정책연대, 선거연대 등 다양한 옵션을 논의한 뒤 당내 통합 반대파 설득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정계를 의결한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청원 의원이 홍준표 대표 자격과 당 운영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청원 "洪, 성원중 수사때 내게 협조 요청해...당대표 물러나야"

탈당 요구에 강력 반발... "홍 대표 체제 종식돼야"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의 출당 결의 이후 최경환 의원에 이어 서청원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22일 "(故) 성원중 의원 관련 사건 검찰수사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가 제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며 홍준표 대표에게 칼을 겨눴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분에 대해선) 누구보다 홍 대표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성원중 리스트로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홍 대표는 정치인이자 지도자로서 당을 이끌 자격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홍 대표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인데 이런 상황에서 홍 대표로서 야당 대표로서 결격사유"라며 "대선후보, 대표로서 뿐 아니라 일반당원으로서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타당 대표는 홍 대표보다 훨씬 가벼운 혐의로 수사 중일 때 사퇴했다"고 압박했다.

그는 "홍 대표에게 보수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치일 뿐"이라며 "당원들은 그에게 사본오열된 당을 하나로 모으고 한국당을 보수정의의 굳건한 기둥으로 세우려고 명령했지만 그는 실망스럽게도 영주행만 하고 있다. 당과 나라를 위해 홍 대표 체제는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많은 사람들은 이번 (윤리위원회) 정계 조치

가 홍 대표가 정권에 잘 보여 자신의 재판에 선처를 바라기 위한 것은 아닌지, 탈당한 사람들에게 양탄자를 깔기 위한 것은 아닌지, 홍준표당 즉 당의 사당화를 위한 것 아닌지 묻고 있다"며 "이제 새로운 회담을 위해 홍 대표 체제를 허무는데 앞장서겠다. 향후 홍 대표 퇴진을 위해 1차적으로 당내절차와 법적절차를 강구해 나갈 것이고 제가 그의 자격 여부를 윤리위에 호부하는 일도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요즘 바른정당과의 합당 얘기가 나오는데 정치는 타협이 중요하다"며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감정이 상해되고 통합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때 공정한 법 절차를 통해서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마치 정권이 자신들에게 올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한국당을)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며) 조건을 달고 양탄자를 깔아 놓으려는 건 정치 도의상, 제 경험상 처음 보는 일"이라며 "당아 (黨兒)가 돌아오는데 무슨 조건이 있고 무슨 양탄자를 깔아줘야 된다는 말이나 당론을 깨고 나간 사람들이 영웅시 돼서 돌아오는 그런 정치 문화는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시장 후보 출마시킬 예정"

내년 2월께 선출...나경채·강은미 등 거론

정의당 광주시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광주시장 후보를 출마시킬 예정이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22일 "창당 5주년을 맞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를 처음으로 출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장 후보는 내년 2월께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는 나경채

중앙당 전 대표 광주시당 대변인, 강은미 부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정의당은 전남지사 후보 출마도 적극 검토중이고 시·군·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자체 후보를 내기로 하고 당내 후보를 불백 중이고 외부 영입도 적극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관계자는 "평등, 생애, 자유, 평화, 연대의 가치를 들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5년이었다"며 "공역 단체장 후보를 출마시키는 것을 비롯해 전면적인 지방선거 출마와 함께 따뜻하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무료상담환영"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